

□경제시리즈Ⅱ-노사정 화합, 영원한 꿈인가

구조조정, 노동자만이 희생양인가

노사정 합의조항 중 98%가 10원짜리 성과라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1만원짜리 손실

◆경제위기 시리즈◆

글 쓰는 순서

- 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② 노사정 화합, 영원한 꿈인가
- ③ IMF 후의 노사정, 진정한 화합의 길은 무엇인가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으로 우리의 경제위기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면에서는 경제파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밀어닥칠 파고를 예견하여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우리가 '노사정 합의'라는 사실에 기뻐할 때도 경제전선 최전방 노동자들은 위기에 몰려있었다.

최근 두 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거친 파도 속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는 지도부와 대의원의 자세가 안타깝다"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보여주는 '노사정 합의안'은 2월 15일 국회입법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기로 몰고가는 현실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이런 노사정위원회 합의 내용 중에는 기업의 양도, 합병, 인수를 포함한 정리해고 조항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큰 일이다. 이 땅에 정직한 기업인은 얼마 없

다. 합의내용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을 얼마나 괴롭힐지 상상해 보자. 또 노동자파견법을 만들면 임금도 대폭 줄고 근로조건은 악화되어 노동자만 죽어나는 꼴이 된다."라고 비판강제하던 대우조선 노조원 최대림씨(41). 그는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몸매 신나를 끼었고 불을 붙인 채 건조 중인 선박의 갑판 위에서 뛰어내렸다.

국민적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노사정 합의안'은 2월 15일 국회입법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기로 몰고가는 현실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정치판의 보수성과 노동운동권의 분열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노동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노사정 합



▲지난 2월 9일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했던 성균관대 유림회관. 장시간 회의에 지친 주요지도부의 곤혹스런 표정에서 지난했던 대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정부의 기득권층 권익보호, 노조의 무조건적인 투쟁 등 일련의 행동들이 변함없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노동운동계의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안 90개조항 중 88개 조항이 10원짜리 성과라면 정리해고제와 노동자 파견제는 1만원짜리 손실"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내몰린 자신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표현한다.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양보적 입장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계파와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세력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내부적으로는 투쟁력과 조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내부 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성과 대외적 명분을 모두 상실했다.

여당의 경우 야당을 끌어안으려는 자세보다는 야당의 강경기류를 자극하는 등 여소야대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야당의 입지강화라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동으로 매사 정부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산업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대란'이 현실로 다가설 판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실정이고 보면, 노동자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있어서 '희생의 고대'나 이를 위한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없다면 두 노동자의 죽음과 앞으로 발생하게 될 노동자들의 희생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있어서 '희생의 고대'나 이를 위한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없다면 두 노동자의 죽음과 앞으로 발생하게 될 노동자들의 희생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과거 민주화가 당면 과제였던 시절에는 학생운동이 민주발전의 큰 몫을 담당했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학생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운동은 과도한 폭력성으로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련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스스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에게 보낸 글은 이런 그들의 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한총련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말이다. 교육부에서 한총련의 폭력성과 이적성을 부각시켜 학생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금까지의 학생운동도 분명 반성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학생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월대·녹두대 등 군대식 전투조직을 결성, '민족해방군'이라 명명하고 각종 폭력시위의 선봉에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회 관계자는 "사수대라는 각종 시위대열을 보호하는 자위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족해방군은 아니고, 군대식 전투조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전한다.

과거 민주화가 당면 과제였던 시절에는 학생운동이 민주발전의 큰 몫을 담당했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학생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운동은 과도한 폭력성으로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련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스스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에게 보낸 글은 이런 그들의 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한총련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말이다. 교육부에서 한총련의 폭력성과 이적성을 부각시켜 학생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금까지의 학생운동도 분명 반성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학생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수란 기자)

강 단 시 론

총체적 시련과 역사의식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가 표출되면서 사회 전반에 총체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난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역사가 항상 변화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 역시 역사상 유례 없는 것이어서 더욱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련이 얼마나 길게 될지, 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 시련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생활관습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시련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편 그 터널 속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러한 시련의 극복을 위한 의지나 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탈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동서문화의 충돌에서 해답을 찾지 아니면 단순한 경제 정책의 실패나 또는 부조리한 생활 자세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 모두는 우리의 위기를 이끌어온 역사적 배경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장구한 역사상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국난을 겪어왔다. 동양 및 세계 최대의 국가인 중국의 한 쪽에서 교류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왔다. 또는 바다 건너 세계의 경제 대국이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만큼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지켜왔던 민족의 긍지와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수적인 차원의 단순한 애국운동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21세기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쌓아 왔던 국난극복의 의로운 투쟁들, 한자문화의 압도적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한글,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고궁이나 팔만대장경 등의 문화재들, 큰 1천4백 여년에 이르는 거대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어려운 보편 사업

들을 보면서 우리는 민족의 강인성이나 참다운 문화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유일하게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정착시킨 국민이기도 하다.

그뿐만이겠는가! 20세기 초반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오 국권회복을 위해,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2차 세계 대전 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위대한 민족의 자력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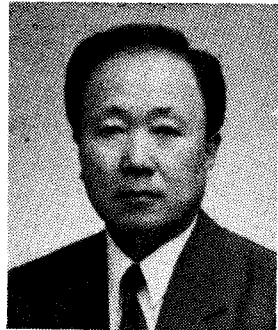
요가 있다. 그것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수십년 동안에 활화산처럼 내뿜었던 민족의 에너지였다. 그러한 힘은 우리에게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대학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현상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자력과 빛나는 전통을 확인하고 교육을 통해 역사의식을 재고시키는 일이다. 이 역사의식과 문화적 긍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향해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에너지를 다시 한 번 힘차게 분출시켜야 할 것이다.

본부 사무국장인 정유진씨는 "이러한 범죄 사건을 처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데 한미행정협정은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는 날까지 금요일집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엽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 엽서는 미국측에 각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보낼 계획이며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엽서를 보낼 예정이다.

(정수원 기자)



신 용 철
(사학과 교수)

□신입생들에게 보낸 교육부 공문 분석

편중된 논점, 학생혼란 야기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과정 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에게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현재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총련의 실제' 등의 제목 아래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공문에서 말하고 있는 학생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서 얻었느냐는 질문에 '한총련 관계자들을 검거한 후 받아낸 진술 내용과 한총련에서 발행한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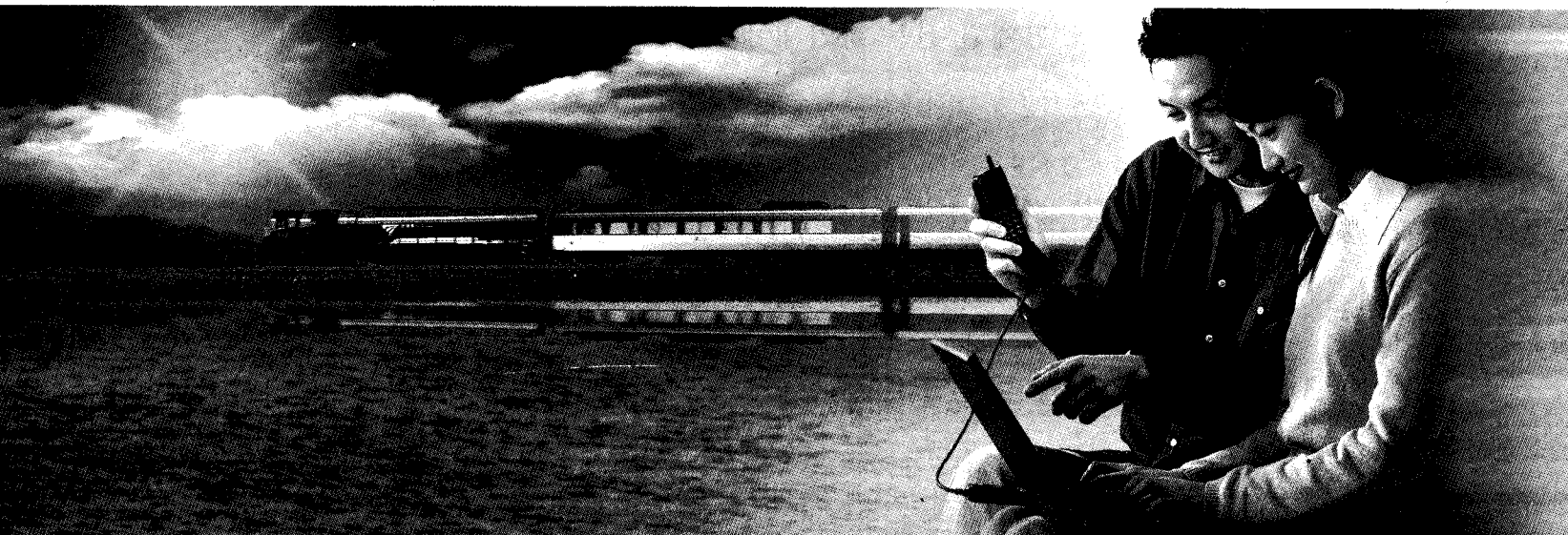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OT나 MT에만 참여해도 운동권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한총련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법정학원'의 하부조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학생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정학원은 범민족청년학생연합으로서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남한의 한국총학생회연합, 해외의 학생연합회 산하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학원은 북한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도 아니고, 법정학원이라는 한 조직의 단순한 하부조직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월대·녹두대 등 군대식 전투조직을 결성, '민족해방군'이라 명명하고 각종 폭력시위의 선봉에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회 관계자는 "사수대라는 각종 시위대열을 보호하는 자위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족해방군은 아니고, 군대식 전투조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전한다.

正道경영·초우량LG

“강촌 가는 기차 안에서 LG O19로 레포트를 보냈다”



오늘은 신입생 환영을 위한 우리학과 총MT의 날-

레포트 마감일과 겹쳐 MT나, 학업이나를 고민하던 나에게 반가운 소식 한가지-

LG O19가 세계최초로 PCS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LG O19를 노트북에 연결만 하면 PC통신은 물론 인터넷, FAX 송수신까지!

강촌가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자료 찾고, 작성 후 교수님 연구실로 바로 E-mail송신-

아, 해방이다! 이제 올라분한 마음으로 신입생 군기 좀 잡아볼까?

우리가 믿는 것은 기술입니다 - LG O19 PCS

세계최초 CDMA기술 상용화
95년 4월 1일, PCS기술의 초석이 된 CDMA 통신장비(Starac-CMX) & PCS통신장비(Starac-1800)를 상용화 하였습니다.

세계최초 광중계망 기술개발
100% 광케이블을 이용,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중계망(COTA)기술 개발, 통화영역, 통화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세계최초 PCS데이터 서비스 개시
CDMA방식으로는 세계최초 - 95년 3월부터 LG O19 PCS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PC를 연결하면 PC통신, 인터넷 검색, FAX 송수신 등이 가능해지는 데이터서비스(DataNet)가 펼쳐집니다.



●7호문로 LG O19 PCS 고객센터 1600-019-7000, (02) 3476-7000
●PC통신: LG O19 PCS 인터넷: http://www.lgpc.com

빌딩 숲에서 산간벽지까지 - 光PCS LG O19